

# 달빛내륙철도 건설 원년의 해

### 남원·광주·대구 등 경유지 10개 지자체장 협의회 발족

남원시, 광주시, 대구시 등 경유지 10개 지자체는 3월 9일 대구에서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경유지 지자체장 협의회'를 발족하고 2018년을 "달빛내륙철도 건설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유지 10개 지자체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0개 지자체장과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대한 당위성을 공유하고 2019년 국책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채택된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자칫 경제성 논리만으로 우선순위에 밀려날 경우 우리 지역은 물론 국가경쟁력 저하에도 직결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대정부에 상대로 공동선언문도 채택할 계획이다.

강사로 초청된 대구경북연구원 한근수 박사는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잠재적 유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며, 달빛내륙철도는 그 대표적 사업으로 경제성이 낮더라도 여타면제사업 등으로 추진하여 남북광역경제권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대구간 19.16km 전 구간을 잇는 고속화철도이며 총사업비 6조원 이상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내년도 국책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공사기간은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하고 있다.(200~250km/h로 주행하며, 광주~대구간 1시간 이내 주행가능)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영·호남 지역의 낙후된 교통 여건을 개선해 동서간 인·물적 교류 활성화와 지역간 연대를 강화할 것이며, 호남·전라·경부·대구산업선, 광주·대구고속도로 등과의 연계교통망 구축을 통해 경유지 주민들의 편리성과 탄탄한 남북경제권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남원시, 광주시, 대구시 등 경유지 10개 지자체는 3월 9일 대구에서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경유지 지자체장 협의회'를 발족하고 2018년을 "달빛내륙철도 건설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책사업 반영을 위한 논리개발과 효과분석을 위해 자체 사전 타당성 학술용역을 3월중 발주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국회포럼 등을 개최하여 중앙부처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이완주 남원시장은 "영호남간 인적·물적 교류 촉진을 통하여 우리시의 관광산업, 제조업, 건설업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향후 국책사업 반영을 위한 논리개발과 효과분석을 위해 자체 사전 타당성 학술용역을 3월중 발주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국회포럼 등을 개최하여 중앙부처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베테랑 복지전문가 10명에게 묻다

### 순창군 주민복지실 김규완 계장, 현장 노하우 책 출간

순창군 주민복지실 김규완 계장이 '알고 싶은 복지현장 10명의 달인에게 묻다'라는 책을 전국 사회복지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출간했다.

공저자들은 오랫동안 복지행정과 복지현장에서 일해 온 사람들로서 특히 복지 관련 서적을 출간한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다. '바이북스'에서 출간한 이 책은 4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현장에서 주민들과 접하면서 겪은 다양한 사연들과 복지담당자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고 있다.

베테랑 복지전문가 10명이 모인 만큼 그들이 들려주는 다양한 노하우 또한 흥미롭다. 저자들은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이 겪는 여러 어려움, 지역의 산재한 복지문제, 고독사 같은 비극적인 사안을 두루 접하면서 자신들이 겪은 시행착오와 문제해결의 방안을 다각도로 펼쳐놓았다.

또 자신들이 들려주는 현장의 사례와 솔루션은 예비 복지인뿐 아니라 이미 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복지의 업그레이드를 희망하는 국민들에게도 폭넓은 정보와 든든한 희망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저자 중 한 사람인 순창군청 김규완 계장은 이미 2016년에 단독 출간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시



골목이야기'에서 지난 25년간 복지업무 맡으면서 겪은 복지현장의 절실한 사연과 이야기를 공감있게 다룬 바 있다.

그 책에 이어 이번 신간에서는 복지행정담당자가 당면하게 되는 첨예한 문제와 갈등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현장감 있게 기술하여 사회복지사를 시작한 새내기 사안을 두루 접하면서 자신들이 겪은 시행착오와 문제해결의 방안을 다각도로 펼쳐놓았다.

김규완 계장은 평소 복지인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성찰에 대한 적극적인 글쓰기를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는 복지인들의 노고가 기록으로 잘 남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이해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매아리

#### 순창군 자동차세 체납액 특단조치

순창군이 지방세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돌입한다.

군은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체납자동차세 징수에 강력 나선다고 밝혔다. 이미 재무과와 읍·면 사무담당자로 편성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전담반'도 구성한 상태다.

군에 따르면 2018년도 이월체납액 8억 7천만원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3억 2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7%를 차지한다. 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 4300만원으로 2회이상 체납영치 대상은 1억 3700만원(300여 대)으로 56.3%에 달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2회 이상 체납 및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집중하고, 번호판영치 예고문 발송, 안내 문자 발송등을 통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유도 홍보활동에도 힘쓰기로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계약업무 역량강화 직무교육

남원시(시장 이환주)에서는 지난 9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건설공사, 계약업무, 보조사업 담당자 등 120명을 대상으로 '정령도 향상 및 공사 등 계약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직무교육은 건설공사 부패방지를 위한 자정 결의문 낭독, 건설공사(도로, 하천, 상수도)설계요령 및 감독업무 수행 절차, 계약업무의 이해와 주의사항 당부, 일상감사·원가 심사제도 이해, 감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업무 공유, 청렴교육(부패유형별) 및 평가관련 당부사항에 대한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기준 강화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기준 강화

남원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급증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민원 및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지기준 강화에 나섰다.

남원시는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건수가 2016년 54건, 2017년 1,139건, 2018년 2월까지 564건 등 태양광 발전 시설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처럼 발전시설이 급증하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사업을 장려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이로 인한 민원 역시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로 인해 주민 갈등, 토사유출로 인한 인접지 피해,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가 있어왔으며, 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7년 10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운영해 왔다.

이번 개정 지침의 주요 사항으로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이내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5,000제곱미터 이상 발전시설에 대하여 이격거리를 300미터로 확대 적용하는 사항과 도로의 범위를 포함하면 6미터이상의 2차선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

발행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태양광 난립 현상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장기적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발이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3월 7일 발령된 이번 개정지침은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행일에 대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시행전 전기발전 사업허가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경우에 한하여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며 주의를 당부 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 '주민 안전 행복'... 순창경찰 슬로건 선정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는 지난 9일, 울 초부터 추진한 순창경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슬로건을 최종선정 발표하고 슬로건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에게 다가가는 변화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경찰은 지난달부터 순창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슬로건 공모로 우수 3가지 안을 밴드에 게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행복! 순창경찰이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슬로건은 청사 현관에 대형 현판으로 게시 청사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찰서를 찾는 주민이 친근감이 들도록 입구에는 순창경찰의 활동모습과 격려와 지원을 통해 함께해주는



협력단체 활동 모습도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은 홍보 전시판도 꾸몄다.

한편 현관입구에는 민원인이 편히 쉴 수 있는 '정담(情談)마루'라는 쉼터를 정비하고, 민원서식과 안내책자를 비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무료로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마련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유소년 승마단 모집

순창군이 오는 3월 15일까지 2018년 유소년 승마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소년 승마단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까지 저학년반 8명,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고학년반 8명 총 16명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승마단 교육은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9개월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순창군 승마장에서 진행되고, 유소년 승마단 신청서는 순창군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학교로 배부되었으며 2018. 3. 15일까지 학교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유소년 승마단에 선정될 경우 기승료 30% 할인, 개인 안전장비 무료대여, 승마대회 견학 및 참여 기회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태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참가 및 우승  
동계대회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바버터 지역 취득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지역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